

Eugene Daily Snapshot

수급 외나무다리에서 뚫출 수 없는 긴장감

유진투자증권

2026.09.04

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)368-6136_lee.jy@eugenefn.com

주식 (26.9.3)

(단위: pt, %)
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KOSPI	6,579.48	0.3	-4.8	5.1	56.1
	KOSDAQ	790.21	-1.7	-5.7	7.2	-14.6
미국	S&P500	7,747.71	1.1	0.2	1.9	13.2
	NASDAQ	26,584.06	1.4	0.2	2.6	14.4
	필라델피아 반도체	11,352.13	0.1	-4.5	-0.7	60.3
유럽	EUROSTOXX50	6,382.59	0.3	-0.7	-0.7	10.2
	독일 DAX40	25,839.33	-0.5	-1.7	0.8	5.5
아시아	일본 NIKKEI225	64,214.48	-0.2	-2.9	0.7	27.6
	대만가권	25,213.31	-0.4	-1.4	-3.1	-3.1

채권

(단위: %, 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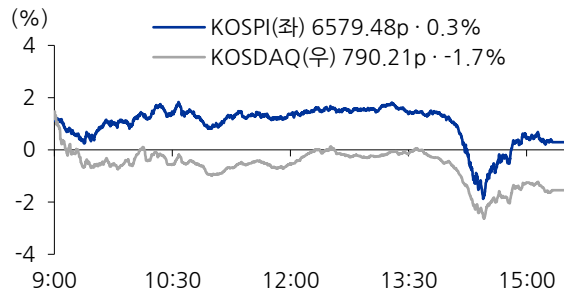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국고채 3년물	3.89	-4.2	13.3	14.6	93.5
	국고채 10년물	4.37	-5.1	12.9	10.3	98.2
미국	미국채 2년물	4.34	-3.6	11.3	10.1	86.8
	미국채 10년물	4.77	-1.1	9.9	9.5	60.1
	미국채 30년물	5.25	-0.9	5.5	2.1	40.5
	NVDA CDS 5년물	81.50	-1.6	-0.9	11.0	39.7
	ORCL CDS 5년물	205.07	-4.4	-0.7	7.8	61.5

환율 및 원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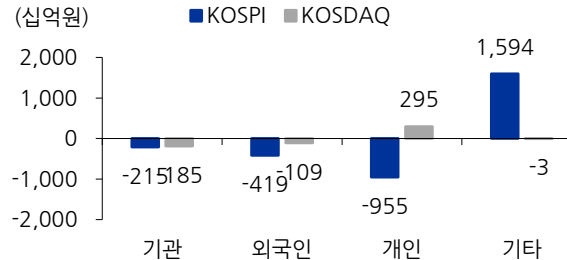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	종가	1D	1W	1M	YTD
환율	원/달러(원)	1,359.30	-0.7	-1.6	-4.9	-5.5
	달러지수(pt)	98.97	-0.6	-0.1	-1.0	0.7
원자재	WTI 연결물(\$)	91.30	0.3	9.3	13.6	59.0
	금 연결물(\$)	4,539.90	2.8	-2.7	12.5	4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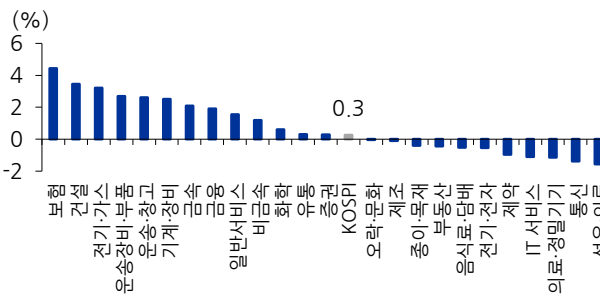
KOSPI ·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(26.9.3)



투자자별 수급 동향



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



간밤 해외 증시

금리 걱정 덜어내고, 다우·S&P500 8/4 일 이후 최대 상승

- **뉴욕증시 3대 지수 강세 마감.** 다우·S&P500은 8/4일 이후 최대 상승. 월러 연준 이사는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을 언급하며 9월 FOMC 동결 쪽으로 기울었다고 발언. CME FedWatch 상 9월 인상 확률 63%→50%. 임의소비재·테크·금융 중심 강세.
- **M7 전 종목 상승.** TSLA(+5.4%)는 사이버캡 출시 이벤트를 앞두고 강세, NVDA(+1.8%)는 오픈스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 130억 달러 인수 합의. META(+3.0%)는 구글(+1.6%) 광고사업 분할 회피 판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완화로 플랫폼주 동반 강세. SNOW(+16.1%)는 2Q 실적·가이던스 상회해 급등.
- **반면 반도체는 브로드컴(-2.7%) 부진에 랠리에서 소외.** 광통신주도 동반 약세, CIEN(-10.4%)·LITE(-2.7%)·COHR(-1.6%).
- 8월 ISM 서비스업 55.4(예상·전월 54.1)로 2월 이후 최고, 물가지수 72.6(전월 70.3)으로 상승세. 서비스 인플레이션 부담 상존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0.6만 건(예상 20.5만·전주 20.4만)으로 소폭 증가.

전일 국내 증시

기타법인인이 또 지킨 코스피 ↔ 코스닥 -1.7%

- **유가금리의 오름폭이 무뎌지며 8/31~9/1일 장세 재현.** 코스피 강보합(+0.3%)·코스닥 하락(-1.7%). 수급도 동일하게 코스피 3대 투자주체 현물 동반 순매도 ↔ 기타법인 순매수로 양분,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.
- **한 발 물러선 금리 인상 경계가 위험선을 지치.** 9/2일 WTI 연결물 +0.9%로 오름폭 축소 & 미국채 10년·30년물 -1bp대 반락. 8월 ADP 민간고용 +3.8만 명(예상 +4.7만 명)도 인상 기대 약화에 영향.
- **건조한 AI 수요 재확인도 투자심리 반등에 일조.** DELL AI 서버 분기 수주 사상 최대 & 연간 매출 가이던스 250억 달러 상향, 브로드컴 FY3Q 매출 296억 달러(+86%·yoy)·AI 반도체 167억 달러(+221%·yoy·+54%·qoq). 브로드컴 4Q 가이던스 하회에도 AI 부문 성장세는 유효.
- **장 후반 코스피는 선물발 프로그램 매도에 -3%까지 급락.** 외국인의 K200 선물 순매도(13:50~14:33 -57.7만)로 선물가·현선물 베이스 하락 & 백워드이션. 매도차익거래(현물 매도·선물 매수)이 유입되며 금투 +42.5만·연기금 +9.2만 계약 선물 순매수 & 현물은 기계적 프로그램 매도로 낙폭 확대.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(14:33)·금투 선물 순매도 전환에 오후 낙폭 되돌림.

주: 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자료 출처: 코스콤,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자의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Eugene Daily Snapshot



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

전일 낙폭 상위 업종 반등 ↔ 선방 업종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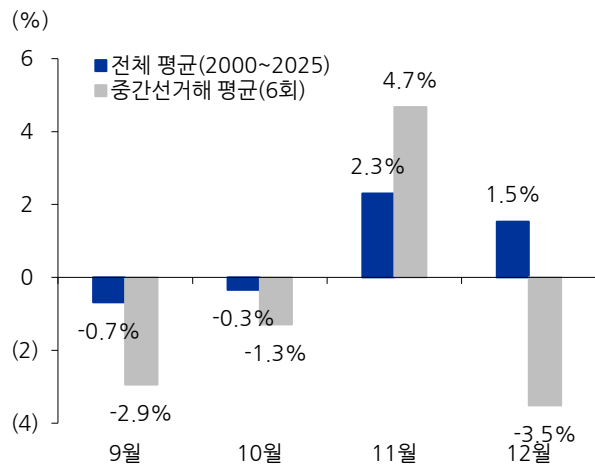
- **전일(9/2) 낙폭 상위 업종 상승**(조선·화학·건설·기계·2차전지) ↔ **선방 업종 하락**(내수·방어주). 금융은 교차 구도와 무관하게 강세 지속.
- **(조선·화학·2차전지)** 한화오션(+5.5%) 컨테이너선 6척·1.5조원 수주에 **조선** 강세(삼성중공업 +8.6%). **화학**은 석유화학 구조개편 기대 지속(LG화학 +6.7%·롯데케미칼 +6.5%). **2차전지**는 낙폭과대 인식에 상승 전환(LG엔솔 +5.2%·포스코퓨처엠 +4.4%).
- **(건설·기계)** 라우 & 중동 종전 기대에 **재건** 수혜 전망. **건설**(현대건설 +6.1%·삼성E&A +5.5%)·**건설기계**(전진건설로봇 +11.8%·HD현대건설기계 +8.5%) 동반 상승.
- **(금융)** 금리 상승 수혜 지속(KB금융 +5.2%·신한지주 +3.6%). **보험**은 美 보험사 인수 검토 소식에 상승폭 확대(삼성화재 +6.9%·삼성생명 +3.1%).
- **(내수·방어)** 전일 선방 업종에 차익실현 집중. **제약바이오**(알테오젠 -5.2%·펩트론 -6.9%)·**화학품**(달바글로벌 -5.7%·에이피알 -3.1%)·**호텔레저**(롯데관광개발 -6.2%·GS피앤엘 -4.9%) 낙폭 확대. **필수소비**(삼양식품 -3.5%·농심 -1.6%).
- **(반도체·IT하드웨어)** 전일 -4%대 급락 대비 낙폭 축소, 약세는 지속. **반도체**(삼성전자 -0.2%·SK하이닉스 -1.1%)·**IT하드웨어**(삼성전자 -3.7%·대덕전자 -6.7%).
- **(코스닥)** 주도업종 부진에 하락 마감. **제약바이오 & 반도체 소부장**(원익IPS -4.3%) 약세. **2차전지**도 에코프로비엠(+0.2%) **보험**에 그치며 반등 제한.

오늘의 클로즈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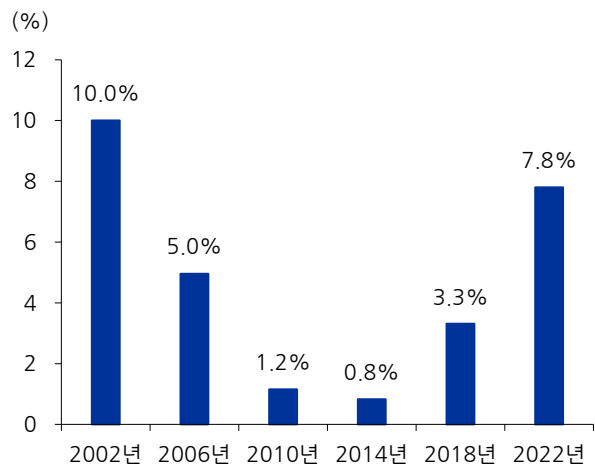
미국 중간선거 전 원기옥을 모으자

- 2000년 이후 **美 중간선거 해 11월 코스피는 6전 6승(!)**. 2002·2006·2010·2014·2018·2022년 모두 예외 없이 상승.
-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**11월 평균 수익률은 +4.68%**로 **전체 평균(+2.30%)**의 두 배.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안도감이 수급으로 유입.
- **9~10월 부진 → 11월 반등 → 12월 되돌림**. 중간선거 해 9월 -2.94%·10월 -1.29%로 **전체 평균(9월 -0.68%·10월 -0.34%)** 대비 하락폭이 컸음. 선거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이 계절적 약세를 자극.
- 반면 12월(-3.51%)에는 11월 선거 랠리 이후 차익실현이 반복.
- **9~10월의 지수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**하고, **11월 랠리 이후 비중을 축소**하는 캘린더 타이밍 전략이 유효. 단 수급적·통계적 참고치로 활용할 사안.

월별 평균 수익률: 전체 vs 미국 중간선거 해



중간선거 해 11월 코스피 수익률, 6전 6승(!)



증시 자금 동향

(단위: 조원)

	9/2 일	1D	1W	1M	
고객예탁금	102.3	4.10	3.35	-1.87	
신용잔고	거래소	26.0	-0.01	0.17	3.56
	코스닥	7.0	0.02	0.17	0.93
수익증권	주식형(전체)	329.8	-8.14	129.76	140.41
	채권형(전체)	212.3	0.11	9.78	10.44
MMF	257.7	0.08	-0.25	6.15	

KOSPI 기관/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

순위	종목명	증가(원)	등락률	대금(억원)
1	삼성중공업	21,650	▲8.6	576
2	KB 금융	177,900	▲5.2	403
3	한화오션	86,500	▲5.5	386
4	LG 에너지솔루션	365,500	▲5.2	321
5	신한지주	114,500	▲3.6	315
6	현대차	383,500	▲1.5	312
7	POSCO 홀딩스	342,000	▲3.6	279
8	대한항공	29,150	▲0.9	258
9	한국전력	32,450	▲3.8	245
10	현대모비스	423,500	▲1.9	235